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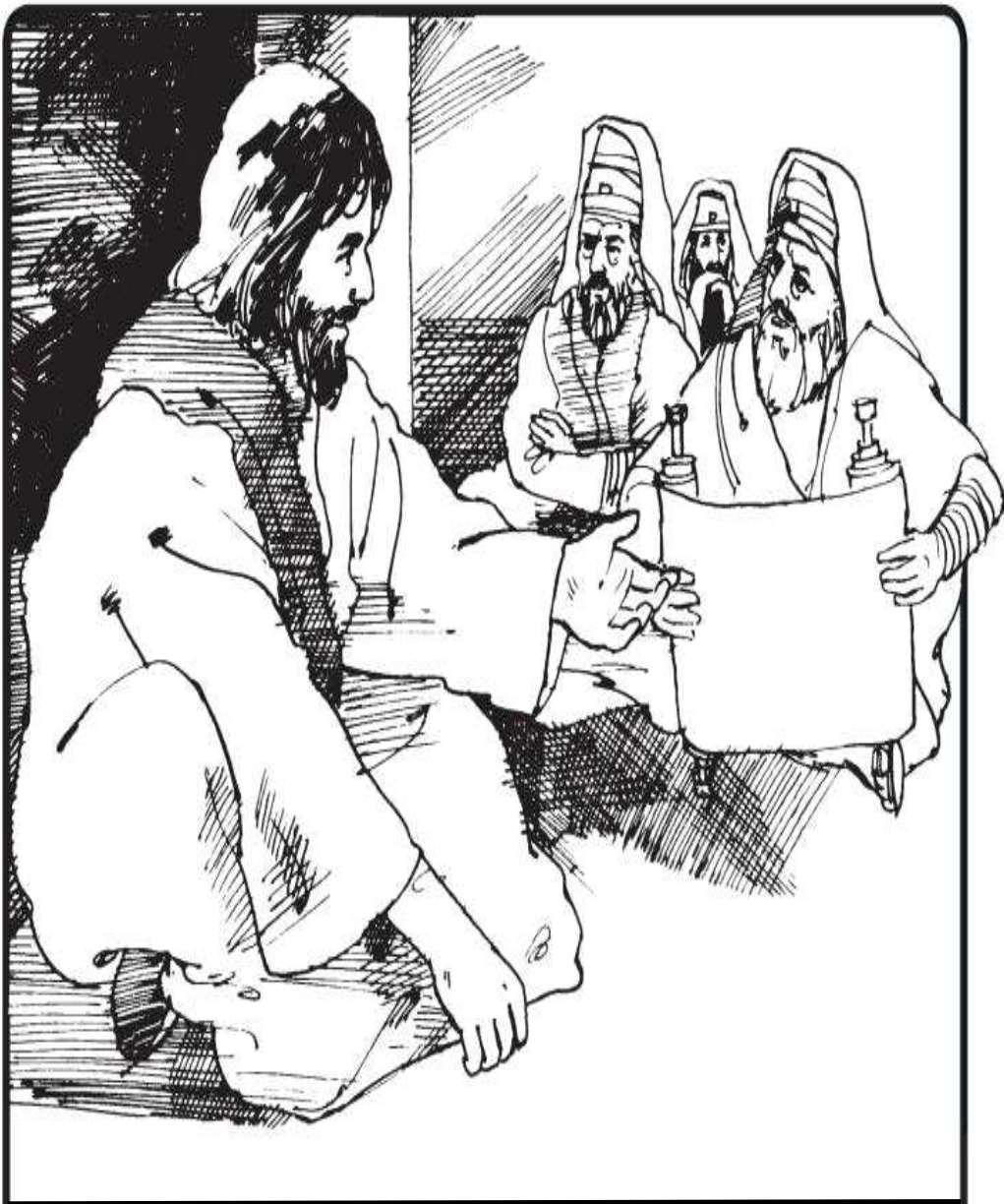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장년부 공과

## 제 14 권



# <청장년부 공과 제 14 권>

주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공과	제목
제170공과	두 사람의 채무자
제171공과	씨 뿌리는 자와 그 씨
제172공과	한 밤중의 친구
제173공과	성탄절이야기
제174공과	깨어 있는 종들
제175공과	무화과 나무
제176공과	세리와 바리새인
제177공과	큰 잔치
제178공과	잃은 양
제179공과	탕자
제180공과	불의한 청지기
제181공과	악한 농부들
제182공과	공과 복습

## 들어가면서

모든 교사 중 가장 위대한 분인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상의 일과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비교하는 일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비유의 의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마 13:10~15 참조)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은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모인 무리들이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권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 11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공과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성탄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과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공과 내용을 요약하고 복습하면서 예수님 비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 제170공과 두 사람의 채무자

성경본문: 누가복음 7:36-50

요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편 85:2)

한 죄인인 여자가 길으로는 의로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도 받지 않은 채 들어와 예수와 동석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에 대한 시몬의 경멸을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녀의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녀의 머리칼로 그의 발을 닦도록 허락하셨을 때, 이에 대한 시몬의 경멸을 생각해 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찾아 온 이유와 죄사함을 받은 이유를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 하셨던 것이다.

1.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마 6:14-15), 용서하단의 의미를 적어보라.

2. 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 죄이다. 각 경우의 예를 제시해 보라.

3.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 받을 수 있다. 본문의 죄인 여자와 의롭다는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라.

4. 회개, 통회, 겸손, 애통의 의미를 적어 보라.

5.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할 때 회개, 통회, 겸손 및 애통이 어떠한 관련을 갖게 되는가?

6. 본문의 여자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7.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여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용서함 받은 바리새인 시몬은 적게 사랑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8. 죄지은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써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 해 답

1. 용서한다는 것은 “아무개를 관대히 봐주다”, “원한이나 징벌을 포기하다”, “벌금을 취소하거나 면제하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남을 용서하기가 왜 어려운지와 특히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왜 어려운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왜 중요한 것인지를 서로 대화해 보라. 그다음 하나님의 용서의 관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경우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경우를 비교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불의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히 8:12).

2. 행위죄는 거짓말, 도적질, 살인 및 싸움을 생각할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의 죄는 증오, 시기, 교만, 질투 및 사기이다. 그리고 태만죄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 및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본문의 죄 지은 여자는 어떤 유형의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3. 그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을 그녀의 행동으로 보였다. 이 뉘우침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받아 주셨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가장 잘 차린 저녁 식사에 초청하였으나 자기 죄의 통회함도 없고 죄용서함을 구하지도 아니 했으므로 그의 모든 선행으로는 죄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다.

4.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아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지은 죄를 슬피하며 자기 삶을 수정하겠다는 결의이다. 통회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서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겸손은 순종하는 행동 및 겸허하고 온유한 상태를 의미하며, 애통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바뀌어 과거의 잘못된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사람이 진실로 용서함을 받기 원한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할 때 참 마음으로 뉘우침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6. 그 여자는 관습을 좇아 그 주인(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의 머리가 아닌 발에 기름을 붓는 겸손을 나타내었다. 그녀의 눈물이 죄에 대한 통회와 애통의 깊은 내적 기도를 나타내 주었다. 그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멸시를 무릅쓰고 초대도 받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7. 우리는 죄 지은 자마다 용서함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됨을 더욱 많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적게 용서함 받으므로 하나님 은혜를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작은 사랑으로 동정하게 된다.

8.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며, 그분 뜻을 따라 행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발적인 헌신을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제171공과 씨 뿌리는 자와 그 씨

성경본문: 누가복음 8:4-15

보조본문: 사도행전 17:11 ; 데살로니가전서 2:13

요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 13:23)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속에 생명과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다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18).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만 될 필요성을 나타내셨다.

1. 정신적인 교훈이나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한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2.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겠으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길가는 어떤 형태의 땅이라고 알고 있는가?
3. 마귀는 우리 마음에 받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환경을 통하여 빼앗아 가는가?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4. 본문 6절에서 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습기의 근원은 무엇인가?(예레미야 17:13 ; 요한복음 4:14).
5. 본문 13절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결실치 못하는가?



6. 인생의 염려와 재리 그리고 일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지 설명하라.

7.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킬 수 있는가? 아래의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준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1:6

디모데후서 2:15

에베소서 6:11

잠언 4:14

에베소서 6:18

시편 84:4

계시록 22:14

8. 요한복음 15:2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라.

## 해 답

1. 영적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셨다(시편 119:11). 설명을 돕기 위하여 예화를 사용하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알게 된다. 예화는 독자의 관심을 끌게 하며 본문내용을 보다 잘 설명하여 주며, 또한 쓰여진 작품의 요점을 강조하여 준다.

2. 길가에 뿌리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린다. 본문 12절에 비유되어 있으며, 마귀가 와서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된다. 길가는 땅이 단단하여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여기서 새들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그것은 거짓 교사, 불신의 마음, 교만 및 세상 유혹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부인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가치

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제시된 생각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간단하게 메모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유익이 된다. 그리고 메모한 내용 반대편에 이러한 각항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메모하게 한다면 매우 유익이 클 것이다.

4. 기도와 말씀 읽기를 등한히 하게 되면 영혼의 기갈을 맞이하게 된다. 예레미야 17:13절과 요한복음 4:14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이사야 55:1-3절에서 목마른 자마다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시험에 굴복하면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고전 10:13을 참조해 보라. 시험과 싸워 승리한 경우를 소개하여 은혜와 용기를 갖는 기회로 삼자!

6. 인생의 염려는 말씀을 의지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을 갖기를 꺼려한다. 재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보다 물질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며, 일락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세속적인 것을 따르게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7. 성경구절마다 한 그룹씩 지정하여 성경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 후 해야 될 일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제안해 보라. 차례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씀”, “믿음을 가져야 함”, “악을 피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하나님 집에 거함”, “하나님 말씀 순종”.

8.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많이 맺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 해 주신 특별한 경우의 예를 제시해 보라. 우리는 왜 죄를 제하여 주심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 개인의 책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 제172공과 한 밤중의 친구

성경본문: 누가복음 11:5-13, 18:1-8

보조본문: 마태복음 26:36-46

요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눅 11:9-10)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효과적인 기도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는 몸소 기도의 생활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남겨 주셨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성경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예를 제공해 준다.

1.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자에게 구하는 내용이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분의 반응은 어떠할까?
2. 하나님께 졸다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요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3.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의 중요한 성구는 누가복음 11:8과 누가복음 18:5이다. 이것들은 구한 것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예를 따른다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4.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여러 번 낙심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 때로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다. 거지 소경과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읽고(눅 18:35-43 ; 마 15:22-28) 당신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적어보라.
5. 가끔 하나님의 어떤 응답 없이 긴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와 다니엘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왕상 18:42-44 ; 단

10:1-13). 그들이 기다리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6. 엘리야의 종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다. 이때 엘리야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영적 속성은 무엇인가?(히 11:1)

7.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낙담하다”라는 어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8. 예수님은 마태복음 6:5-7에서 바리새인의 외식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에 대해 책망하셨다. 외식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하게 졸라대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9.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던 시대에 아브라함의 기도생활과 믿음으  
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용기를 얻는가?

## 해 답

1.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마 7:11 ; 눅 18:7).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을 공급해 주신다.(마 6:32-33)

2. 졸라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고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셨다(눅 24:49). 예레미야 29:13에서  
찾다(구하다)의 의미를 토론했다. 그것은 시간을 드려 굳세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3. 두 가지 비유의 경우, 탄원자는 낙심치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  
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원자와 같이 낙심치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기  
를 원하신다. 또 다른 응답받은 기도의 예는 창세기 32:24-29의 야곱의 기  
도이다. 응답받은 기도의 예를 서로 이야기하며 용기를 얻으라.

4. 당신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심을 마음에 가지게 될 것  
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낙심과 의심을 가져다준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  
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

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만 기도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5. 엘리야는 그의 종이 바다를 바라보고 일곱 번째에 손바닥 크기의 구름을 바라보기까지 계속 기도하였다. 다니엘의 경우는 21일째 날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강하에 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다니엘은 그러한 약속은 갖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우리는 엘리야, 다니엘을 통하여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무런 약속의 말씀도 없는 상태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기도할 때에 더욱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6. 엘리야는 종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러 가지 않고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급히 갈멜산을 떠나가라고 전하였다. 이것에서 엘리야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거의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그를 끝까지 의지하면 그는 응답해 주신다.

7. 낙담하다의 의미는 “피로하다”, “용기와 희망을 잃다”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반대의 의미이다. 야고보는 약 1:5-7에서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씀은 기억하고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8.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기도한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을 가지고 구하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약 4:3).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불순한 동기로 기도한다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9. 아브라함의 생활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두드러진 본보기가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을 위하여 25년간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응답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 제173공과 성탄절 이야기

성경본문: 누가복음 2:1-20

요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2)

여러 세기 동안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첫 크리스마스 밤에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인간과 동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어 인간의 속죄의 값을 기꺼이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순례의 길을 마치실 즈음에 그 앞에 놓인 십자가를 저야 됴를 아셨으며, 이에 기쁘게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 이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원하신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1. 요셉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는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 이기 때문이다(마 1:21). 이 진리가 우리 시대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2. 아기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예수님의 탄생지가 왜 성경에 예언한 곳과 일치하는가?(미 5:2)

3. 예수님은 어떤 왕족의 계보를 따라 오셨는가? 이것은 어떻게 입증되는가?(마 1:1-16, 22:42) 이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가?(엡 2:12-18)

4. 그리스도가 왜 말구유에 누우셨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고후 8:9)

5.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선포되었는가? 이 소식은 왜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보다는 목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전해졌는가?(눅 2:15-20)

6.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11)고 전파하였다. 천사의 선포와 링컨의 노예해방 선포를 비교해 보라. 어느 것이 더욱 위대한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7.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께 가느라고 그들의 양떼를 버려두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8.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여호수아 1:8)

9.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으며 첫 성탄절 밤에 무엇을 주셨는가?(요 3:16)

## 해 답

1.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까지 메시아(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첫 번째의 약속은 창세기 3:15에 나타나 있다. 이 약속은 죄인들에게 꼭 필요하였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죄악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자주 갈망해 왔다. 인간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으나 죄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이루셨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은 유효하다.

2.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 사실을 미리 예언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로 하여금 호적의 포고를 내려 예수님이 탄생할 정확한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거하게 함으로써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기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비하신 방법들을 동원하여 역사하신다.

3.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눅 2:4 ; 마 1:20). 메시아의 약속은 아브라함(창 12:1-3)과 유다(창 49:10), 그리고 다윗(마 22:42-45)을 통하여 그 기원을 알 수 있다. 선지자들은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예언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추구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으나 정작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치 아니했다(요 1:11). 오늘날 모든 인간은 영생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축복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

4. 여관에 방이 없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에 말구유간에 머물렀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나타낸다. 요셉과 마리아가 많은 돈을 소유했다라면 숙소를 마련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은 가난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복음전파하시는 동안 거처를 소유하지 못했으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여 그 고기 입에서 얻은 돈으로 세금을 내었다. 또한 그는 가난한 계층이 입는 이음매 없는 옷을 입으셨다.

5.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상태를 갖추지 못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거나 부하다고 해서 부자를 거절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는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나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거의 없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갈급하며, 세상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므로 영적인 것에 더욱 주의하게 된다. 그 일례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곧 “백성이 즐겁게 들더라”(막 12:37).

6. 링컨의 포고로 노예 상태에 있던 미국의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들에게는 위대한 날이 되었다. 천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세주를 전하였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사람들마다 죄의 속박을 싫어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나 오직 실패뿐이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날마다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7.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고 양떼를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 당시 목자들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과 오늘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취하는 행동을 비교해 보라. 목자들은 믿고 구세주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다음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 신앙 간증은 우리의 영적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계 12:11)

8. 마리아는 들은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심사숙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된다. 여호수아는 오늘날처럼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였다(시 1:2)/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모든 선생들 보다 더 많은 명철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시 119:99). 디모데는 그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됨을 교훈 받았다.(딤후 4:15)

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獨生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토론해 보자. 인간은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죄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선물을 주셨다(롬 6:23 ; 엡 2:12,13).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인 구속사역을 기꺼이 성취하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성탄절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해야 한다.

## 제174공과 깨어 있는 종들

성경본문: 누가복음 12:35-48

요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 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35)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신 후 승천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려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같이 반문하였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 3:2). 여기서 “감당하다”란 말은 “두려움 없이 대면하다”란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미리 준비한 성도들은 그날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같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곧 늘 깨어 기도하며 그의 오심을 대비하면서 사는 성도는 그날에 주님께 기쁘게 열납되리라는 것이다.

1.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상태, 특히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본 공과에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
2. 누가복음 12:35,36절에는 깨어 있는 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3.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도적 같이 오신다고 하였다. 당신은 도적이 당신 집에 올 줄 알고 있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하겠는가?
4.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다시 오심에 준비할 수 있는가?
5. 본문에 나오는 바 그 종은 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며 이상한 행동을 취하였다. 그 행동을 아래에 적어 보라(누가복음 12:45,46)

6.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청지기직을 정의해 보라. 이것과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7. 본문에 따르면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지 못하여 자기 일에 충성을 하지 못한 종들이 당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 경우와 그리스도인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 있지 못했을 경우 사이에 어떤 일치점이 있는가?

8. 요절을 참조할 때 주인은 언제 돌아오는가?

9. 바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해 답

1.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경계하고 깨어 있는지 깊이 살펴보자. 우리는 운전을 할 때 경계하고 깨어 있게 된다. 또한 상점에서 계산을 점검할 때에 올바르게 지불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를 하며 일을 한다. 이런 예들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깨어 경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2. 깨어 있는 자들은 열의를 갖고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옷을 입고 허리를 단단히 매어 준비가 된 상태이다. 그들의 등불은 밝게 켜진 상태이다. 우리가 손님이 도착하는 때를 안다면 현관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곧 그를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때에 준비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들이 주인이 오기를 깨어 기다린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려야 한다.

3. 깨어 경계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해야 한다.

4.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란 자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5. 구원을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세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미리 그런 행동을 가져온다. 사람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6. 청지기직은 맡은 것을 잘 관리하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관련지어 볼 때 청지기는 하나님 은혜의 수령자이며, 그에게 맡겨 준 것을 하나님과 회계할 책임을 가진 자이다(베드로전서 4:10 ; 고린도전서 4:1). 선한 청지기의 태도에 대하여 토론해 보라. 그것들에는 충성(고전 4:2)과 책임(롬 14:12)과 정직(롬 12:17)을 들 수 있다.

7. 한 종은 맡은 것을 다 빼앗기고 불신자와 똑같은 자로 여김을 받았으며, 다른 종은 채찍으로 많이 맞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준비하기를 게을리 한 자는 자기 맡은 일에 불충성함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 죄 가운데 행한 자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보상은 자기에게 맡겨진 특권에 상응하게 된다.

8.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올 것인지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한 선포된 적도 없으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 제175공과 무화과 나무

성경본문: 누가복음 13:6-9 ; 요한복음 15:1-8

요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예수님은 자주 진리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나무, 과수원, 넝쿨, 가지 및 열매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와 같다. 자연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매는 식물이 성장한 결과로 얻어진다. 이와 꼭 같이 주님께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장 없다면 열매가 없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가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 여러 경우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유대 국가의 상징으로 나타내셨다. 이 비유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 그 멸망이 가까웠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유 가운데는 각 개인을 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설명하여 보라.
2.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과수원 지기는 무엇을 했나?
3. 과수원 주인은 왜 열매를 기대할 권리를 갖는가?
4.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5. 열매 맺은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야 하나?

6. 하나님은 가지들을 잘 돌보신다. 각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똑같은 보호와 기회를 제공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햇빛과 비를 공급 받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7.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가? 영적 은혜의 특별한 예를 제시하라.

8. 그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 해 답

1.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증거 곧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 이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간 자비를 연장하신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 넣으신다.

2. 본문 8절에서 그는 땅을 파서 무화과나무의 생산력을 높이도록 일 년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열매 없음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다만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일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만 하셨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애쓰시며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

3. 무화과나무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기다릴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는 무화과나무를 사와서 과수원에 심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죄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4.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은혜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하여 꾸준히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5.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케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깨끗케 하는 것과 과수원지기가 전지하는 것 사이에는 일치된 점이 있다. 한 가지가 전지되면 다른 가지에는 더 많은 양분이 공급된다. 전지 없이 성장하는 나무는 자주 기형이 된다. 돌보지 않아 나무가 뻗뻗하게 자라게 되면 가지 사이에 햇빛이 들지 않아 열매가 적게 열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6. 그것을 잘라 불속에 집어넣는다. 한번 구원 받았다가 계속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그의 타락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구원의 열매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7. 갈 5:22,2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두가 영적 풍성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8.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지하고 재배하심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잠 3:11,12 ; 히 12:11).

## 제176공과 세리와 바리새인

성경본문: 누가복음 14:7-14, 18:9-14

보조성경: 이사야 57:15, 미가서 6:8, 야고보서 4:10

요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5)

사람 앞에 바른 것 같은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만다. 예수님은 저녁식사에 초대 받은 사람들이 상석을 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낮은 자리를 취해야 할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곧 친구나 친척 부자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자, 절름발이, 병신 그리고 소경을 초청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의 동기에 따라 우리의 상이 결정된다. 겸손, 곧 우쭐거리지 않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이에 대한 것이 다시 나온다.

1.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왜 상좌에 앉으려고 했는가?
2.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나 기타 성도 교제 때 상좌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기는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이 되겠는가?
3. 그리스도께서는 왜 바리새인에게 친구, 형제, 친척 및 부자들을 그의 잔치에 초청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는가?
4.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누구를 잔치에 초청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5.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에 대하여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혐오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6.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세리의 자세와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7. 사람들이 왜 세리와 같이 단순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가? 또한 왜 그러한 기도가 중요한가?
8. 세리의 “의롭다함”과 바리새인의 “의롭다함”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9.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무슨 뜻인가?(눅 14:11)

## 해 답

1. 그들은 남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을 두셨다.
2. 교회에서 남에게 잘 띄는 사람은 자신을 치켜세우지 말아야 한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특권을 따라 우리가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의 위치는 예수님 십자가 뒤에 숨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말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최후 평가는 인간의 것과 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바리새인이 초청한 마음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는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호의를 받기 원하였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다.
4. 가난한 자, 불구자, 절름발이 및 소경을 초청하라고 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우쭐거림이 없는 마음의 동기로 초청할 것이다. 그러면 상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식사하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를 정죄하신다.
5. 그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는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멸

리했고, 금식을 하며 십일조를 바쳤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교만했다. 이 교만이 그의 선행을 덮었으며 정죄에 이르게 하였다. 잠언 6:17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 첫째가 교만임을 알 수 있다. 루시퍼가 교만하여 천국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에 대한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6.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입을 깨달아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죄를 다 아뢰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자기가 범한 죄를 슬퍼하며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자기 죄를 고백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7. 많은 경우가 교만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가치를 자랑한다. 세미나 모임 등을 통해서 겸손의 내용은 없고 교만적인 내용이 거론된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유일한 방법이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롬 3:23), 갈보리 십자가 보혈 없이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8. 세리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용서를 받았다. 바리새인은 자기 눈에만 의로울 뿐이고 하나님께는 정죄를 받았다.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에는 사망의 길이라”(잠 16:25). 보통 교만이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9.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 제177공과 큰 잔치

성경본문: 누가복음 14:16-24

요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누가복음 14:16-18)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 그의 동족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로부터 먼 곳의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그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또 그의 구속의 선물을 조롱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변명을 보면 실소를 자아낸다. “변명”을 사전에서는 1) “자기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탄원”, 2) “의무의 경감”, 3) “자기 합리화”, 4) “거짓 핑계”로 풀이하고 있다.

1. “변명의 개념”을 적어보라. 본문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모두 변명하였다. 변명의 4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좋은 것은 어느 것인가?

2. 밭을 산 사람은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않으려고 어떤 변명을 하는가? 이런 변명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날 변명할 때 가장 합리화하는 한 가지가 “나는 그 일을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후일로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 왜 그러한가?

4.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은 어떤 변명을 하였는가?(창 3:12) 하나님은 아담의 변명을 들어 주셨는가?

5. 결혼한 사람은 “나는 올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실제로 그가 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가?

6. 당신이 목사라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참고하여 고후 8:12절을 설명해 보라.

7. 아무개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어떤 특별한 임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8. 열방의 모든 족속이 다 초청함을 받은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계 19:9) 이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 해 답

1. 어떤 의미에서는 4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적합한 개념은 4번째이다. 요구하는 변명과 받아들여지는 변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원했다라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내세우는 변명과 본문의 변명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변명은 거절을 위한 적합한 대안이 못된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자신을 변명하는 자는 그를 섬기기를 원치 않고 대신에 다른 일을 택하여 하게 된다.

3. 너무 때가 늦다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적당한 때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 버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때에 자기 생명이 끝나 버릴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후 6:2).

4. 그는 자기의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고 변명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변명했을 때 이를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태만 죄 등 모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히 2:3).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

5. 실제로 그는 아마 올 수 있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도 있

었다. 그는 아내만 그 초청에 갈 수 있는지 물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 혼자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계획을 분명히 시도하지 않았다. 의를 우선적으로 좇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당연히 응답을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시되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재능을 받으신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고린도후서 8:12절 말씀을 설명하여 보라. 하나님은 이같이 자기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은혜와 재능을 풍성히 주사 기대 이상의 큰일들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하여, 어려운 일을 만난 중에도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7. 그 거절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간이나 능력 면에서 합당한 거절사유가 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경우는 자발적인 마음의 결여 때문에 거절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8. 모든 사람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청 받았다. 하나님 섬기는 의무와 특권을 다 행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장차 이런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78공과 잃은 양

성경본문: 누가복음 15:1-10

요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심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태도가 잘 묘사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잃은 상태를 알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비참함을 아울러 잘 드러내 준다. 예수님은 이 양쪽을 다 찾고 계신다.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자기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는 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1.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불평하였다. 이 불평은 왜 온당하지 못한가?
2.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마 23:1-7) 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쳤는가?
3.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제 갈 길로 간 양과 같은가?(사 53:6)
4. 죄인이 회개할 때 누가 기뻐하는가?
5.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 볼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6.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반응은 눅 5:32의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7. 양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서로 비교해 보라.

8. 회개란 무엇인가?(고후 7:10)

## 해 답

1.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들과 교제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2. 서기관은 모세 율법을 필사하고 번역하는 사람이며, 바리새인은 예수님시대에 종교적인 무리들이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암송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하였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을 권면하라(약 1:22).

3. 양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며, 인도자에 의하여 모이고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양은 쉽게 흩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한 피조물인 것이다. 양의 특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갔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롬 3:10). 양과 같이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4. 하늘에서 기뻐함과 아울러 죄인의 친구, 가족 그리고 그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한다. 목자는 그의 잃은 양을 찾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은 잃지 않은 99 사람 보다 잃어버린 1명을 찾았을 때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말한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삶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사야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 12:3)라고 하였다. 회개하여 구원 받은 후 겪어야 할 영적 전투 및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힘입을 것이다.

5. 죄인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를 위해 금식, 기도 및 복음증거하거나 성직자에게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꼭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 등 3단계

로 찾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잃은 영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라.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마 18:11).

6. 그 여자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였다. 그 여자가 기뻐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은 9개 드라크마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게 된 그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일치 된다.

7. 양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밖에서 방황하는 것을 알지만 드라크마는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드라크마 경우와 같이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다. 다른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함을 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눅 19:10).

8. 예수님은 회개한 한 영혼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기뻐한다며 본문 7,10절에서 회개를 언급하신다.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하며(행 17:10),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 받게 된다(눅 13:3,5). 회개하여야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그는 용서를 받게 된다(사 55:7).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계 22:17).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요 3:16).



## 제179공과 탕 자

성경본문: 누가복음 15:11-24

요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 음 15:21)

탕자는 죄의 쾌락을 즐기었지만 그것은 잠시 뿐이었다. 탕자는 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았다. 탕자가 들어간 먼 나라가 궁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버리고 타락으로 들어간 전형적인 예이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그가 배반한 아버지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1.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떤 동기로 그 집을 떠나려고 하였는가?

2. 탕자가 먼 나라에 도착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점점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가다 보니 그리되었다. 한 걸음은 아버지의 축복에서 멀리 떠나려는 그의 결정과 행동이다. 이것과 신앙의 축복에 멀리 떠나가는 신자가 취하는 행동과 비교해 보라.

3.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왜 죄는 그렇게 값비싼 것이며 또 이것을 영적인 것과 비교해 보라.

4. 그가 궁해졌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는가? 탕자가 자구책으로 취한 최초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5.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6.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하려고 결심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죄로부터 해방되려는 죄인의 행동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7. 그는 아버지께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어떻게 받아 주시는가?

8. 아들이 아버지께 한 첫 번째 요구는 아버지 재산 중 나의 몫을 달라는 것이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 왔을 때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했으며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9. 본 공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누구인가?

## 해 답

1.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한 것은 아버지의 구속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평온을 가져다주는 환경을 계속 따르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2. 탕자의 경우처럼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도 점점 더 깊은 죄의 길로 나아가서 타락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 적용시켜 보자. 처음에는 한 걸음이 작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 및 기도의 부족,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것, 다른 신자를 존중하지 않고 성직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경건한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인해 타락이 오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 하며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3.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으며, 허랑방탕한 생활로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것을 바라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술취함, 탐욕, 교만, 방탕 등 죄에 낭비한 사람의 삶과 잘 일치한다.

4. 친구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로 하였다. 이 경우는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잘 일치된다. 대부분 경우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본문 비유에서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여 돼지 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죄는 비참함을 가져온다.

5. 그는 궁핍하여 도움이 절실히 요구됨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그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그의 삶의 완전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아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결국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을 것이다.

6.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비유의 탕자와 같이 결심하고 곧 실천이 뛰 따라야 한다. 죄인도 의를 행하려는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그는 회개하여 천국의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한다(사55:7).

7.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뛰어가서 그를 맞았다. 아버지는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잘못을 비난 및 비판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환영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맞이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강제로 그를 집으로 끌고 가지 않았고, 아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며 아들은 자기 뜻을 따라 아버지께 돌아 왔다.

8.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아들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로 아버지는 종을 시켜 가장 좋은 옷, 반지 그리고 신으로 아들을 환대하였다. 이 사실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드릴 때 하나님은 그가 바라는 이상의 것으로 채워 주심을 알 수 있다.

9. 본 공과의 중심인물은 탕자이나, 아버지의 원대하고 사심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일 3:1).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을 기꺼이 받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 제180공과 불의한 청지기

성경본문: 누가복음 16:1-13

요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21)

예수님은 한 부자의 청지기였던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모든 소유에 관하여 절대적이고도 온전한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하는 비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얼마 안가 자기의 자리에서 해고되리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해고 후의 자신의 장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이 지혜는 주인이 보기에 감탄할 정도로 기민하고 빈틈이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야기 끝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로울 때가 종종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예비함 같이 그들의 잠시 동안의 장래를 위하여 빛의 자녀들이 쏟는 노력보다도 더한 노력을 쏟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그들이 지혜로움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이다.

1.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도모했던 그 지혜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2. 본 공과에 나오는 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부유한 자를 말한다.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실치 못하였지만, 해고당한 후의 그의 장래를 예비해 놓는 일에 있어서만은 지혜로웠다고 칭찬하였다. 그 청지기의 행동과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행동의 닮은 점들을 적어보라.

3.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들을 보다 지혜롭게 잘 이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하고도 영원한 것들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회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기민하지 못하기까지 하

다. 이 땅의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거듭 강조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4. 다음의 빈칸을 적어 넣어라. “( )에 충성된 자는 ( )에도 충성되고 ... ” (눅 16:10). 이 진리는 영육 간에 다 통용되는 진리이다. 그 실례들을 들어보라(눅 19:17-19).

5. 당신은 참된 부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보는가?

6. 누가복음 16:12절의 뜻을 당신의 언어로 설명하여 보라.

7. 본 공과의 누가복음 16: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여러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섬길 수가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 해 답

1. 그것은 그들의 빛을 많이 탕감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그들로 자신에게 빛을 지게 만들었다. 청지기직을 해고당하게 되면 손으로 벌어먹기도 창피하고 또 구걸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그는 그같이 호의를 미리 베풀어 놓음으로써 해고당한 후의 자신의 장래를 그들에게 의탁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놓은 것이었다.

2.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이나 금전상으로 손해가 날만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3. 예수님이 그같이 거듭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의 것들을 찾는 자들이 많고 많기 때문이었다. 땅의 것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당장에 잡아끄는 것들인 반면에, 영적인 것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다. 아름다운 설악산 봉우리들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눈앞에 가리는 게 없도록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한다. 산 바로 아래서 바라보면 눈앞의 장애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로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하면 할수록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식과 추구는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다.

4.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그 차로 주일학생들을 교회로 실어 나르는 일을 주일에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라도 돈으로 하나님의 구령사업에 드리든가 혹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헌금하는 일을 할 수 있다(잠언 19:17). 이처럼 물질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면 이는 곧 “하늘에 다 보화를 쌓는 것”(마 6:29)이 된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상달된 경우가 그 좋은 한 예이다(행 10:4).

5.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이 진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통한다. 성경상의 그 실례들로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다. 이 비유를 보면 세 종들이 다 충성한 것은 아니었다. 둘은 신실하였으나 하나는 눈가림만 하였던 자이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는 무궁한 하늘의 상급을 받고자 하거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적은 일에 신실함으로 인하여 보다 더 귀한 책임과 특권들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일에 있어서 “보다 많은 책임”은 그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다 작은 것들”에 신실한 증거들을 보여야만 주어지게 된다.

6. 본 공과 본문인 누가복음 16: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과 대비되어 참된 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로써 참된 부요란 영원한 보화들을 가리킨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눅 16:19-31)를 언급하면서 부자가 귀히 여긴 것을 서로 이야기 해 보라. 거지 나사로가 귀히 여긴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게 한다.

7. 타인의 소유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자신의 것들도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하다. 그러므로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잘 보아 주면 이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다.

8. 사람은 한 주인 밖에 섬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보화이든, 어떤 분야의 것이든 하나님에게만 드리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라고 하였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롬 12:2 ; 요일 2:15).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으로써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 드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섬겨 드리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지혜이다.

## 제181공과 악한 농부들

성경본문: 누가복음 20:9-19

요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3)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영적 교훈을 주고자 주어진 것이었다. 오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당시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오랜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르게 사는 길에 대하여 그 선민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셨다. 이는 그들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그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는 핍박하기도 하며 일부는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엔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 외아들까지도 배척하였고 끝내는 거짓으로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다.

1.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반응을 보통 죄를 지은 죄인들의 상투적인 자기변호와 대비하여 설명하여 보라.

2.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들을 멸하고 열매 맺는 다른 이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시리라” (마 21:41,43)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을 적어 보라.

3.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복음)의 문을 여신 때는 언제부터였는가?(행 10:34-35,44-45)

4.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20:17)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4:10,11절을 보기 바란다.

5.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마태 21:44) 고 하셨다.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6. 당신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이방인들(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 사람들) 이 모두 다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 가부를 적은 후에 그 답의 이유들을 설명해 보라.

7.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이 도리어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지기도 한다. 전도서 8:11-13절의 말씀을 정독한 후에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의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당신의 느낀 감정이나 의견을 아래에 적어 보라.

8. 어떤 자들은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그 분의 신성(그의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부인하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주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같이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데살로니가전서 5:2,3 ; 히브리서 2:3)

9.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 갔다. 그러나 미구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을 떠나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실 것이다(누가복음 21:24 ; 로마서 11:19-22). 이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고린도후서 6:2)

## 해 답

1.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증오와 불신(배척)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마치 비유 속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상속자에게 행한 것과 방불하다.



자기 죄가 밝히 드러난 죄인은 상투적으로 자기 죄를 부인하려 들며, 도리어 자기 잘못에 대한 핑계를 대기에 급급하며, 때로는 적반하장 식으로 더욱 광포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같이 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2.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서 돌이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포도원(교회)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같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고 싶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들은 온갖 자잘한 율법적인 규례들의 멍에에 둘러 쌓여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은혜)의 문을 모든 이들에게로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향유하고 있다(롬 11:11,12)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즉시로 하나님의 긍휼의 문은 이방인들에게로 열렸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의 경우를 곰곰이 살펴보자. 또한 사도행전 1:5,6절에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선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도리에 관한 설교를 거절하므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 도리를 전하였고 결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선민 유대인들을 버리셨던가? 이는 그들의 종교지도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대 국가도 서기 70년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때 로마 정벌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파괴되었는데, 수많은 이들이 참살을 당하였고 그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4. 여기서의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며 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시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버렸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가 주셨다”(요한복음 1:12). “예수”라는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이 이 세상 천하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사도행전 4:12).

5. 이 돌(예수)위에 떨어진다 함은 그에게 회개함으로 나아온다함이며, “깨어진다”함은 회개함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다 함이다. 그에게 오는 자마다 이같이 죄된 욕망이 깨어져서 새로운 마음(에스겔 36:26)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유대민족은 그 같은 배척으로 인해 망하여 열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적인 재난과 비운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야 말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6.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과 그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와 그의 부활 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기껏해야 “성인”이나 “위인”정도로 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7.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당하였듯이, 지금도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영원한 심판 아래 던지움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도리어 형통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8. 구원받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9.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던 것같이 장래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의 환영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매일 매일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제182공과 공과 복습

성경본문: 각 공과 성경 본문들

요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3:34,35)

지금까지 배워 온 열 두 공과들을 회고하여 보자. 우리는 그 공과들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여러 측면들을 보여주는 여러 비유를 살펴보았다. 오늘의 공과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과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례들을 복습해 보기로 하였다.

1.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어 주신 사실에서 극명하게 잘 증명되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특히 “잃은 양”의 비유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주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셨나?(누가복음 15:4)

2. 탕자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누가복음 15:17) 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 취하는 첫 단계의 태도와 이것을 비교하여 보라.

3. 자신이 구원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하나님을 약속하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용서”의 뜻을 적어 보시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의 사이의 그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여 보라.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용서의 분량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보기를 바란다(누가복음 7:47).

4.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것 같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네 종류의 다른 “흙”의 반응은 곧 네 종류의 다른 “마음”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누가복음 8:4-15). 그 관계를 각기 대비하여 적어 보라. 또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단어”가 되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의 의미를 새겨보라.

가. 길가 땅의 반응:  
다. 가시떨기 땅의 반응:

나. 돌밭 땅의 반응:  
라. 옥토의 반응:

5.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 들였다면 그 외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서 그 열매를 맺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들 중 몇을 아래에 적어 보라.

6. 하나님은 죄 용서를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즐겨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실상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요한 열매들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끝까지 회피하는 자들의 인생은 결국 어떠한가?(누가복음 14:24).

7.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누가복음 11:8,9절에 의거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 이외에도 또 다른 한 기도로서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 왜 것처럼 하나님께 강청하고 조르는 기도가 중요한가?

8.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최대 목표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날에 주께 영접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항상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깨어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셨다. 이는 그의 오실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삶을 정리하였는가? 지금 당장에 세상을 떠날지라도 거리끼거나 후회할 만한 일들은 남아 있지 않는가?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는? 두루 두루 살펴보기를 바란다.(눅 12:39-40)

## 해 답

1. 주님은 잃은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셨다. 주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주시는 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갖 희생도 무릅쓰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미치는 그의 한없는 자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요한복음 3:16).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탕자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는

점이었다.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향한 첫 단계의 조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거든 이 탕자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야 한다. 당신 자신의 체험담을 돌이켜 보기 바란다.

3.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더 많이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봄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우리 각 사람의 그에 대한 사랑의 다소여부를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적게 용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적게 사랑할 것이나, 많은 죄를 용서 받은 자는 많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은 이상에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빛을 일평생 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의당 용서하여 주어야 할 의무도 지게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4. 네 종류의 땅을 열거한 후 인간의 마음을 대비하여 보라.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과 또 비교하여 보라.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밭의 자세를 기경하는 것의 중요성도 깊이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5.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는 자로서 의당 맺어야만 할 열매들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에는 주님에게서 잘려지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7:20절을 보면 성도는 그 열매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라(갈 5:22,23).

6.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핑계나 변명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특권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과 특권을 향유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장래에 주어질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인생 제일의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변명이나 핑계도 소용이 없다.

7.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계속 줄라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기도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야고보서 5:16절에도 이르기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다. 이를 흠정역 성경으로 번역하여 보면 “의인의 간절하고도 효과적인 기도는 많은 유익을 가져 오느니라”가 된다. 이런 기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가정과 교회에, 내 직장, 내 나라에 이루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과 의에 주린 목마름의 심정 등이 복합적으로 게재하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밖에!